

§ 교회 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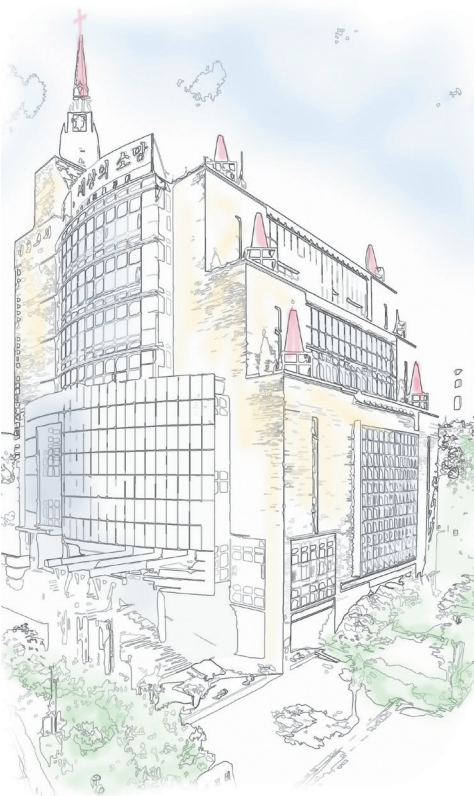


요한복음 강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I

(요 8:31-48)

이종운 원로목사



본문 37절 이하를 보면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지를 계속 설명하다가 마침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먼저 한 구절씩 주석을 한 다음에 전체가 주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1-36절의 주석

31-36절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 성도, 구별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두 절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30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31절). 똑같이 믿음이라는 말인데 31절에 나와 있는 믿음과 30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30절의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사람들을, 3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아직 인격적인 결함을 갖지 못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8:31)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괄호 속에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성도 간 불가분의 관계를 말합니다. ‘거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말씀 안에서 산다, 말씀을 가지고 산다, 말씀과 더불어 산다, 말씀을 위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둘째,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지니”(요 8:32상) 두 번째 조건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 진리를 깊이 안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사머니즘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그 앞에 가

서 자주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떼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알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하되 진리를 분명하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자유자가 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를 상실합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의 ‘자유’는 정치적 인 자유나 경제적 혹은 사상적, 언론적인 자유, 지식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집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 앗수르, 페르시아, 로마, 헬라 모든 나라들의 종살이를 했으며 당시에도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가보다 욕신적으로는 종살이를 했지만 이것은 잠시 있는 일이고 곧 메시야가 오시게 되면 자신들은 영원한 천국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는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는 메시야가 아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넷째,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 8:34)

다시 죄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한 번의 죄를 말하는데 이것은 원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누구나 다 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죄 아래 있는 죄의 종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롬 6:17).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언제든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나고 간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지해서 마귀와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든가 즐기려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죄와 더불어 즐기는 사람은 결국은 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다음 주 계속)

뉴 노멀 시대의 도전과 과제

(롬 12:1-2)



임성빈 목사
(장신대 전총장)

우리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면 그것이 편안한 것이고 평안한 것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편안한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던 삶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예배 시간이 되면 은혜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일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일까지 생기고 보니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습니까? 과연 신앙인답게 살았습니까? 이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답게 살았다면 어쩌서 전 국민의 19.7%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생겨난 이후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날 동안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1.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 정도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신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날은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도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성도의 가정, 일터, 지역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은 본받게 되고, 변해야 할 것들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뜻, 자기의 철학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2. 뉴 노멀 시대- 교회 안팎의 상황과 분석

코로나 이후에 전개되는 세상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합니다. 뉴 노멀 시대에는 교회가, 신앙인이, 목회자가, 중직자가 사회적 섬김을 할 때 이전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ESG입니다. E는

Environment(환경)의 약자입니다. 사람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자꾸 환경을 개발하다가 결국 환경은 파괴하게 되고 코로나19도 박쥐가 사는 동굴을 사람이 개발을 위해 들어갔다가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뉴 노멀 시대에 대두된 것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분법적 심화,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을 4번씩 맞았는데 어떤 나라는 한 번도 맞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취약 계층을 섬기는 일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이고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종교인들은 점점 줄어 들고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여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대부분의 교회는 25%의 교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대상이 40-50대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이 떠나면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교회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세대이고 은혜를 받은 만큼 책임이 더 큰 세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세월 하나님의 나라가 서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뉴 노멀 시대에도 섬김의 리더십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크리스찬 리더십 세미나

- 1월 한 달간, 찬양예배 시 -

2022년 1월 한 달간 찬양예배 시간에 리더십 훈련을 실시한다.

서울교회는 2021년에 하나님 은혜로 수년간의 분쟁을 완전히 끝내고 회복되었고, 이제 2022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다시 출발(RESTART)한다. 많은 부서의 섬김의 일꾼들 모두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서울교회의 재건과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 효과적이고 선한 리더십 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하여 1월 한 달간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크리스찬 리더십' 훈련을 진행한다.

강사진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월 16일(주)
공진수 목사
(목양교회)

주제 :
상당 관점에서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1월 23일(주)
김성중 목사
(장신대)

주제 :
희망을 일구는 교육적 리더십



신혼가정부로 초대합니다



예완식 집사
(신혼가정부 부장)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월등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합니다. 누구나 가정생활은 처음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 실수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들은 가정을 디자

인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협력하며, 양보하면서 가정생활을 할 때 그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신혼가정부에서는 부부의 예절, 친밀함, 소통하는 법, 믿음 생활, 좋은 부모 되기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예쁜 신혼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부부 여러분 저희 신혼가정부 임원들은 지난 몇 주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신혼 가정을 초대

하고자 웰컴 데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모시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서울교회 신혼가정부에서 여러 신혼 가정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 참가자격 : 결혼 5년 차 이내
- 모임시간 : 주일 3부 예배 후 3시 10분
- 모임 장소 : 802호
- 지도목사 : 김익환 목사
- 부장 : 예완식 집사 · 부감 : 최영경 권사



안디옥열방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디옥열방교회는 2008년 이래로 설립되어 의정부를 중심으로 양주 및 동두천, 송우리 및 포천까지를 포함해서 국내 튀르크 언어권 무슬림 체류자 중에서도 근로자들과 난민 신청자들을 전담하는 선교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터키인 30여 명과 한국인 사역자 10여 명 총 40여 명이 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평일 토요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꾸준히 해 오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1년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자의든 타의든 수적인 열세가 있던 해였습니다. 현재 국내 외국인으로서 불법 체류하는 근로자들은 이 땅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다른 외국인들과 확실히 다른 성향 하나는, 바로 '한국 토착화'에 대한 거부 현상입니다. 이 땅에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릴 사람들이어서 한국어 교실, 한국 문화 체험 등 수많은 '한국화' 과정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법으로 체류 중인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의든 타의든 언제인가는 자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어서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화'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는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귀국해

서 '자국 사회에 빠른 적응'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이슬람 신앙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조차 발견됩니다. 더욱이 이들에게 한국은 어쩌면 더는 친구 국가도 아니고, 동방예의지국도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친 비어와 폭언 그리고 비 인격적인 대우로 지쳐만 가는 이들은 얼마 안 지나 항수병으로 괴로워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한국을 떠나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은 문화, 음식, 언어 심지어 신앙 등 모든 것이 낮은 한국 땅에서 오로지 돈 벌어 금의환향하기 전까지는 참고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의 '블루오션'으로 주목해야 할 사역이 바로 이 국내 외국인 이주 난민선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연을 가진 국내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지만, 한국 교회가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며,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들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다면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가운데 6일을 거의 쉬지 않고 일하고 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하루일 테지만 적지 않은 우선순위들을 뒤로 미룬 채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들을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냥 되돌려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이들과 함께 기뻐해 주는 가족 같은 그 누군가가 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숫적 열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ZOOM이나 유튜브 등의 인터넷 비대면 매체를 활용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역했던 한 해였습니다.

기도 제목

1) 경기 북부지역에서 무슬림 전담 선교 교회로 터키어권 배경을 가진 이주난민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일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시며 함께 일 할 동역자들을 더 보내 주소서.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록 제한된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참석하는 무슬림 회심자들과 관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하게 하소서.

3) 현재 세례받은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양육 프로그램(성경 공부, 한국어 공부)을 인도하셔서 참석하는 형제자매들이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4) 현재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젯, 하산, 휴세인, 나스레틴, 마흐무트, 베이셀, 무랏 형제와 셀다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현지인 리더십으로 함께 사역하는 교회로 변화하게 하소서.

김종일 선교사



장기간 교회 불 출석 교인들에 대한 교적 정리

당회는 지난 1월 12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1월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2016년 말 이후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 중 타 교회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서울교회 출석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교인들에 대하여는 제적처리를, 연락조차 불가하여 출석 의사 확인이 어렵고 아무런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

무를 행치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실종 교인 결의와 이들에 대한 교적 정리를 결의하였다. 명단은 후보 삼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현재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원 교육전도사를 준전임 전도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7(화) 후학, 제자 신학자들의 신년 인사 차 예방을 받는다. 1.20(목) 여호수아 회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특남 : 5교구 임만석 성도·배경아 성도 가정 (임선철 집사·이영주 권사 손자)
9교구 이민웅 성도·김은지 성도 가정 (이영조 집사·이영자 권사 차남)

■ 떡 제공 : 조서현 집사·최진이 권사 가정 (은혜 중에 장례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소준 백승규

장하광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사랑부 교사 근속 상 수상

전국장예인교회학교 협회는 우리 교회 사랑부(부장 : 장창수 집사)교사 중 장기근속자 8명에게 근속 상을 수여하였다. 이중 20년 근속 상을 받은 네 분 교사는 사랑부가 개교한 이후 줄곧 사랑부에서 봉사한 교사들이다.

수상한 교사는 다음과 같다.

· 20년 근속 : 노인숙 이강인 이관모 이봉선

· 15년 근속 : 이난희

· 10년 근속 : 김복희 최유현

· 5년 근속 : 오용이

교회 홈페이지 관리 직원 모집

현 담당 직원이 곧 사직할 계획이어서 새로이 홈페이지 및 교적, 유튜브 채널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한다.

홈페이지 관리(HTML 가능자 우대)와 유튜브 스트리밍 및 채널 관리 포토 샵(그래픽 툴) 가능자를 우대한다.

신앙강좌부 시간과 장소 변경

시간 : 주일 12:20-1:20

장소 : 웨스트민스터홀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월17일	월	창 24-25		창 42-46	
1월18일	화	창 26-27		창 47-50	
1월19일	수	창 28-30		출 1-9	
1월20일	목	창 31-32		출 10-14	
1월21일	금	창 33-35		출 15:1-21:32	
1월22일	토	창 36-37		출 21:33-26:37	
1월23일	주일	창 38:1-41:36		출 27-32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크리스찬 리더십을 구비하여 뉴 노멀 시대에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지기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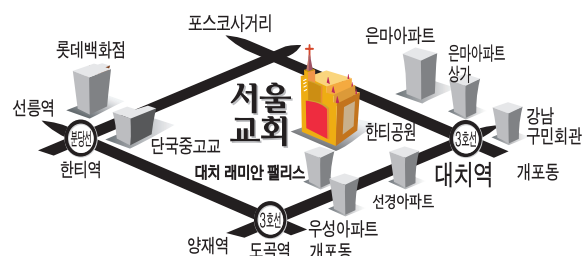
2.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교회로 모여, 모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향한 진전이 있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